

## 대순진리회 고통론의 유형화와 특징

차 선 근

대순종교문화연구소 · 연구위원

- I. 무엇이 문제인가
- II. 『전경』 속 고통 사례들
- III. 고통의 유형화: 고통 원인 모델
- IV. 대순진리회 고통론의 특징
- V. 맺는말

### I.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질병 같은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심적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갖은 정신적 고통 등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고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하다거나 덜하다거나 한 것이 없다. 그저 고통은 고통일 뿐이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 비로소 고통의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그럴 경우의 고통은 대개 구원과 희망이 없는 극형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고통이 생존이나 자기반성 및 성숙, 인간 공동체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관점 역시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통은 여전히 고통일 뿐이다. ‘하필 왜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냉철하고 지성적인 해답이란 없다.<sup>1)</sup> 인간의 이성에 낮선

고통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개 고통의 문제는 종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예술과 문학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 설명을 통해서만 납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종교는 고통을 회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고통을 어떻게 견디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기존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한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사고 틀을 새롭게 갈아 끼우는 것은 자기 방어적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해결책을 받아 든 인간은 세상이 잘못되거나 또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삶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이며 해볼 만한 것으로 인정된다.<sup>3)</sup>

기성종교들이 고통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어놓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sup>4)</sup> 그런데 한국의 신종교, 특히 대순진리회는 고통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밝힌 학술적 논의들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전경』은 신성·불·보살이 진멸의 위기에 처한 우주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최고신인 구천의 상제께 하소연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제께서 삼계를 대순하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5)</sup> 이것이 대순진리회의 첫 출발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키워드들 가운데, ‘진멸’과 ‘하소연’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고통’이다. 그렇다면 대순진리

- 1) 손봉호, 『고통 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p.107-113; 강영안, 「고통의 현상학-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 『기호학연구』 3 (1997), pp.80-81; 김대식,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대한 종교·생태학적 인식」, 『종교학연구』 22 (2003), p.195.
- 2) 손봉호, 「고통에 대한 역사철학적 성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 『흠이란 무엇인가-철학·종교에서 본 악과 고통의 문제』 (서울: 창, 1992), pp.242-243; 이삼열,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같은 책, p.311.
- 3) 황선명, 「고통, 구원 그리고 광기」, 『종교학연구』 3 (1980), pp.42-44; 강영안, 앞의 글, p.91; 유호중, 「고통과 인식」, 『철학연구』 65 (2004), pp.303-319.
- 4) 1990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 주최로 이루어진 ‘고통에 대한 철학·종교적 성찰’ 학술 세미나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그 결과물은 단행본인 『악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 1992)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철학·유교·불교·도교·기독교의 악과 고통에 대한 입장이 소개되어 있다.
- 5)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1장 9절, 예시 1절.

회는 신명과 인간을 포함하는 온 우주의 고통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은 의외로 보인다.

대순진리회의 지방 수도생활 현장<sup>6)</sup>에서는 인간 고통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목표 중 하나는 도통(道通)을 성취한 지상신선(地上神仙)<sup>7)</sup>이 되는 것이고,<sup>8)</sup>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를 해야만 한다. 도통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장애와 고통은 닥쳐오기 마련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곧 수도이기 때문에,<sup>9)</sup> 대순진리회의 종교생활에서 고통에 대한 담론(談論, discourse)은 중요하게 인정된다. 고통 담론은 주로 교화를 통해 상황에 맞게 생산되고 실천을 강력하게 추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면의 다양한 고통 담론들은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옮겨오지 못하였다.

물론, 고통이 인간의 마음 작용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대순진리회는 근본적으로 상극이라는 세계의 현실에 고통의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는 지적이 장병길(1989)과 이경원(1997), 윤재근(1998)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차선근(2011)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sup>10)</sup> 이들의 주장을 요

6) 대순진리회의 수도는 본부도장과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지방에서의 수도생활은 방면(方面)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방면은 1,000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대순진리회의 지방조직이다. 방면에 대한 설명과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현재와 미래-포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편, 『한국 종교의 확산전략』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2), pp.118-124.

7) 지상신선에 대해서는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사상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2 (2011), pp.150-161 참조.

8) 八.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세계개벽(世界開闢). 『대순진리회요람』 (1969), p.17.

9) 『대순지침』 (1984), pp.93-94 참조.

10) 장병길,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278; 이경원, 「대순종지의 사상적 구조와 음양합덕론」, 『대순사상논총』 2 (1997), p.532; 윤재근,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4 (1998), p.412, pp.414-415;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종교연구』 65 (2011), pp.97-99.

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순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우주 만물 사이에 작용하는 관계는 상생과 상극이다. 상생(相生: Mutual Beneficence)은 서로 돕고 살리는 관계를, 상극(相克: Mutual Overcoming)은 서로 억제하고 누르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들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면 만물의 존재 모습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만약 상극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 선 상태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과도한 상극 관계에 치우친 만물들이 서로 간 원한을 만들고 쌓게 되어 갖가지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극 원리가 지배한 이러한 세계가 바로 선천(先天)이다.”

『전경』을 토대로 시도된 이러한 설명은 고통 문제에 대한 맥을 정확히 짚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술들만 가지고서는 방면에서의 고통 담론들을 포함하는 대순진리회의 고통이론(The Theory of Suffering)이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상극이라는 우주의 운행법칙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사실만 강조하였고, 고통의 원인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강도의 강탈 행위로 어떤 사람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피해자의 고통을 우주의 상극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강도가 당연히 저야 할 책임은 은폐되어 버린다. 강도의 강탈 행위가 상극이라는 우주의 법칙과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하더라도 강도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에서 있어서 그 책임을 따지는 문제는 핵심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여된 논의들만 가지고는 고통이론이 온전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상제께서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sup>11)</sup>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욕망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고통에 대한 기존 기술들은 욕망이라는 관

11) 『전경』, 교법 3장 24절.

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

셋째, 대순사상에서 고통의 원인이 상극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존 기술들은 그것을 빠뜨리고 있다. 이를테면 단련·수행을 하거나 시험 혹은 정성을 들이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들이 그런 것들이다. 선천에는 삼라만상이 모두 상극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종류의 고통 이면에도 상극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련과 수행의 과정, 정성을 드리는 행위, 상제의 천지공사를 받들거나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원인을 전적으로 우주적 차원의 상극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맥락의 관점에서도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 글은 고통의 원인을 상극이라고 진단하는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 단지 다양한 고통들에 대한 상황별 적확(的確)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즉 인간이 겪는 고통은 상극 때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다 자세히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욕망으로 인한 고통, 단련을 하고 정성을 들이며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고통까지 모두 기술해 낼 수 있는 폭 넓고 다양한 패턴의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대순진리회 방면들의 고통 담론을 어떻게 학문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 것인지, 또 어떤 일관된 체계 속에서 이들을 취합하고 학술적으로 정립해 나갈 것인지 하는 고민을 안고,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고통은 왜 존재한다고 보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물음으로써 대순진리회의 고통론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대순진리회 고통론 기술의 척도가 되는 자료는 『전경』이다. 『전경』에는 「행록」, 「공사」 등 7편의 17개 장에 걸쳐서 총 839개의 절이 수록되어 있고, 여기에서 대략 284개 정도의 고통 사례들을 끄집어내어 볼 수 있다.(부록 <표 3> 참조) 이 글은 그 사례들에서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설명·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Ⅱ장) 인간이 겪는 고통은 그 원인이 여럿일 수 있다. 일단 이 글은 고통의 원인 각각을 설명하는 개별 고통 모델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델들을 각 고통 사례에 중첩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으로써, 개별 고통 사례들에 대한 여러 원인들과 의미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Ⅲ장) 『전경』의 고통 사례를 활용하여 시도된 이러한 방법은 다른 여러 고통 사례들에 대한 유추 해석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릇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종교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sup>12)</sup>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인간이 믿고 수행하는 종교가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면, 그러한 종교에 시선을 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대순진리회는 인간의 고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순진리회의 고통론을 기술하는 논고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둘째, 수행은 인간 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정론(神正論, Theodicy) 역시 그러하다. 대순진리회의 수행론, 신정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론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sup>13)</sup> 따라서 이 글은 대순사상 연구의 터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교가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

12) 최중성, 「巫의 치료와 저주」, 『종교와 문화』 7 (2001), p.109.

13) 차순근,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p.336.

지 기술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종교의 교리 해석에 집중하기보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 그 종교의 교리적 의미들이 어떻게 협상·타협·실천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최근 종교학의 연구 동향들 가운데 하나이다.<sup>14)</sup> ‘의미(meaning)’ 영역에서 ‘실천(practice)’ 영역으로의 연구 전환은, 경전을 위주로 고정적인 교리를 탐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그 교리가 해당 신앙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sup>15)</sup>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진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순진리회 경전의 자구적 해석에 매달리는 것을 넘어서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 자신의 고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고통론에 천착하는 이 글은 현대종교학의 연구 경향에 발맞춘 대순진리회의 실제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sup>16)</sup>

## II. 『전경』 속 고통 사례들

먼저 『전경』에 각 고통 사례들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들에서 고통의 원인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첫째, 다음의 『전경』 구절을 살펴보자.

14) 이길용, 「한국 종교학 방법론의 과제와 전망」, 『종교연구』 70 (2013), p.12.

15) 종교적 실천(religious practice), 실천으로서의 종교(religion as practice)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관심은 ‘살아있는 종교(lived religion)’, ‘매일의 종교(everyday religion)’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하홍규, 「실천으로서의 종교-의미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문화연구』 15 (2010), pp.1-2 참조.

16) 고통 극복을 다루는 종교의 입장은 그 종교의 세계관과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기 마련이기에 이 글은 대순진리회의 세계관과 특징을 살피게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최중성, 「巫의 치료와 저주」, pp.109-110; 최중성, 「儒醫와 巫醫-유교와 무속의 지유」, 『종교연구』 26 (2002), pp.151-152.

하루는 형렬의 딸이 병들어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문밖에 나가서 휘파람을 세 번 부신 뒤에 만수(萬壽)를 세 번 부르시니 맑은 하늘에 문득 지미 같은 것이 가득히 끼어 지척을 분별키 어려워 지나라. 상제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병들게 한다.” 하시고 공중을 향하여 한 번 입 기운을 풍기시니 그 지미 같은 것이 입 바람에 풀려 올라가서 푸른 하늘이 트이고 곧 바람이 일어나서 지미를 흩어버리니 하늘이 다시 맑아지니라. 이로부터 형렬의 딸은 병이 나았도다.<sup>17)</sup>

김형렬의 딸이 병으로 겪는 고통의 원인은 ‘지미’이다. 지미는 얼굴에 끼는 얼룩점인 기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곧 자연의 흐리고 탁한 기(氣)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병들게 한다’는 상제의 말씀에 따르면 김형렬의 딸에게는 병고(病苦)를 짊어져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고통이 발생한 원인은 인간이 아닌 자연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만물이 상극에 지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대순사상에 입각했을 때 이러한 고통의 발생 원인은 천지의 상극도수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전경』에는 청춘과부가 수절(守節)하는 고통에 대한 언급이 있다.<sup>18)</sup>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서도 재혼을 하지 못한 채 늙어 죽어야 하는 수절은 성리학적 지배 이념이 공고하게 뿌리를 내린 17C 중엽 이후 한국사회에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었다.<sup>19)</sup> 이 윤리는 여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훌륭한 규범이자 덕목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회적 억압 장치였다. 여인들의 이러한 고통은 당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편성된 인간 사회 자체에 고통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경』에는 동학군의 패망과

17) 『전경』, 제생 40절.

18) 『같은 책』, 공사 2장 17절, “청춘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19)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경상도 단성현 호적장부』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고문서연구』 18 (2000), pp.1-30.



그로 인한 인명의 희생이 묘사되어 있는데,<sup>20)</sup> 이것은 당시 지배계층과 일본군이라는 인간 집단이 만든 상극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이 나타난 것이라는 상제의 말씀<sup>21)</sup>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인간이 저지르는 상극적 행위들은 우주의 상극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은 탓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의 상극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인간 또는 국가나 사회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의 고통은 자연에게만 그 책임을 두는 고통과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상제께서는 “골폭사장전유초(骨暴沙場纏有草) 혼반고국조무인(魂返故國弔無人)”이라는 시 한 귀를 언급한 적이 있으셨다.<sup>22)</sup> 상제께서 말씀하신 시구(詩句)는 조선후기에 널리 유행했던 ‘유구국(琉球國: 지금의 오키나와) 세자 절명시(絕命詩)’라는 시 중의 일부로 알려져 있다.<sup>23)</sup> 『택리지』에 의하면, 일본이 유구국을 공격하고 왕을 사로잡아가자 유구국 세자는 왕을 구하기 위해 귀중한 보물들을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표류하였다가 그곳의 목사에게 보물을 모두 뺏기고 죽임을 당하였다. 위의 시는 바로 그때 유구국 왕자가 쓴 시라고 한다. 그런데 유구국 왕자가 제주목사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sup>24)</sup> 그 시 만큼은 유구국 왕자와 관련이 없다

20) 『전경』, 행록 1장 23·26절.

21) 같은 책, 교법 3장 34절.

22) 같은 책, 권지 1장 28절.

23) 김탁, 「증산 강일순이 인용한 漢詩 연구」, 『한국종교』 19 (1994), pp.71-81; 『택리지』에 실린 그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堯語難明桀服身(요임금의 말씀이라도 걸 같은 자에게는 밝히기 어렵도다) 臨刑何暇訴蒼旻(형을 당하는 몸이 어는 겨를에 하는 님께 호소하랴) 三良入穴人思曠(세 명의 어진 이가 무덤에 들어가건만 재물을 주고 풀어줄 이 그 누가 있으리오!) 二子乘舟賊不仁(두 아들이 배를 탔는데 어질지 못한 자에게 해를 입었네) 骨暴平原縈有草(나의 뼈는 모래밭에 버려져 풀만 무성하게 얼힐 뿐) 魂歸故國弔無親(혼백이 고국에 돌아간들 조문해 줄 친척조차 없어라) 竹西樓下澗滔水(죽서루 아래 도도히 흐르는 물에) 長帶餘哀咽萬春(원한을 간직하여 오랜 세월 울고 있으리!)” 이종환, 『택리지』, 이익성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2), pp.168-170.

24) 조선의 정사(正史)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의 광해 50년 4년 2월 10일(을해) 첫 번

는 보고도 있다. 1595년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다 탈출한 유민들이 표류를 하다가 삼척에 닿았는데, 삼척부사가 공을 탐내어 그들을 모두 몰살하고 왜구를 죽인 것으로 거짓 보고하였고, 이에 최삼(崔參)이 그들을 위로하여 쓴 ‘죽서루(竹西樓)’라는 제목의 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다.<sup>25)</sup> 어쨌든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조선시대에는 지방 관리가 표류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몰살해버리는 사건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sup>26)</sup> 상제께서 이 시의 한 귀를 말씀하심은 표류를 하다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알고 계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상제께서는 그 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호소할 겨를조차 없다고 절규하며 죽어갔던(臨刑 何暇訴蒼旻) 표류민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셨던 것 같다.

때때로 고통은 탐욕을 앞세운 한 개인 때문에 겪게 되기도 한다. 이 경우의 고통 원인은 분명한 상극이지만, 지진·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국가·사회의 구조적 질서가 만들어내는 상극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넷째, 『전경』에는 순임금의 죽음과 그로 인한 두 왕비의 슬픔에 대한 기술이 있다.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sup>27)</sup>

두 왕비의 고통 원인은 단주의 원 때문이다. 상제께서 단주의 원과 그의 해원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셨다는 점을 감안하면<sup>28)</sup> 단주는 타

째 기사와 인조 8권 3년 1월 8일(정사) 첫 번째 기사에는 제주목사가 유구국 왕자를 죽이고 보물을 강탈한 사실이 실려 있다.

25) 전관수, 『한시작가·작품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7), pp.1480-1482; 박혜민, 「소문과 진실의 경계: 유구국세자(琉球國世子) 이야기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고찰」, 『연민학지』 21 (2014), pp.280-284 참조.

26) 박혜민, 앞의 글, p.285.

27) 『전경』 공사 3장 4절.

인을 해코지하려는 의도를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단주가 그러했다면 그는 불량한 사람이 되고 상제께서도 단주의 원을 풀어주시고자 애쓰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단주의 원은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뜻밖의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순과 두 왕비가 죽은 사건은 상극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단주의 원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또 다른 어떤 상극으로 귀결되었고, 그것이 순과 두 왕비가 겪은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악인이 의도적으로 상극을 만드는 앞선 경우와는 다르다고 해야 한다. 즉 상극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만든 상극과 의도치 않게 생겨나버린 상극은 그 작용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섯째, 『전경』에는 한 여인이 벼락을 맞아 죽은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다.<sup>29)</sup> 상제께서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한 쌍의 남녀가 연애결혼을 하였건만 남편이 일찍 죽자 장례도 치르지 않고 부인이 도망을 갔으므로 벼락을 내려 응징하시게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그 여인에게 돌이 채 되지 않은 갓난 애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마저 버리고 도망가는 길이었다는 말도 전해진다.<sup>30)</sup> 어쨌든 그 여인은 천연(天然)과 인도(人道)를 저버렸기에 천노(天怒)를 사서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니, 그 여인의 고통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여섯째,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잘못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정성백은 웃지 말라는 상제의 당부를 어긴 탓으로 오만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았다는 『전경』 기록이 있다.<sup>31)</sup> 정성백 본인의 잘못이 고통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잘못에는 고의성이 없었다. 형법에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책임의 강도를 달리 규정하

28) 같은 책, 공사 2장 3절, 공사 3장 4절.

29) 같은 책, 행록 3장 36절.

30) 『대순전경』 6판 (김제: 동도교 증산교회 본부, 1965), pp.58-60.

31) 『전경』, 공사 1장 16절.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성백에게도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일곱째, 『전경』에는 서당 아이의 해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상제께서 하루는 경석에게 검은 색 두루마기 한 벌을 가져오라 하시고 내의를 다 벗고 두루마기만 입으신 후에 긴 수건으로 허리를 매고 여러 사람에게 “일본 사람과 같으냐.”고 물으시니 모두 대하여 말하기를 “일본 사람과 꼭 같습나이다.” 하노라. 상제께서 그 의복을 다시 벗고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떡으로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함으로 그럼 어찌 하여야 하겠느냐 물은 즉 그 신명이 나에게 왜복을 입으라 하므로 내가 그 신명을 위로 하고자 입은 것이니라.”고 이르셨도다.<sup>32)</sup>

서당 아이가 떡 장난에서 지고 울었던 고통의 원인을 상극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를테면 중요한 게임에 져서 눈물을 흘리는 운동선수의 절망감은 자신을 이기려 든 상대의 상극적 행위 때문에 겪는 것이지만, 공정한 룰을 기초로 하는 스포츠였다면 점에서 오로지 상극을 그 고통의 원인으로만 기술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운동선수가 게임에서 졌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상대를 축하해주는 여유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그 운동선수가 승리만을 집착하는 것, 즉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결국 이기려는 욕망이 극단적으로 흘러 집착을 낳았고 그 집착이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서당 아이의 고통이 발생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덟째, 상제께서는 임진왜란 때 절사(節死)한 천곡(泉谷), 즉 동래 부사 송상현의 원을 풀어주는 공사를 보신 적이 있으셨다.<sup>33)</sup> 그의 죽

32) 같은 책, 행록 4장 54절.

33) 『대순회보』 14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3), pp.18-23 참조.

음은 왜병의 침략에 따른 전투 때문이었으니 고통의 원인은 인간 집단이 저지른 상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탓이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의(義)의 실현과도 관계된다. 사실 그가 겪은 고통의 원인을 상극으로 인한 피해로만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제께서 ‘절사(節死)’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도 포함시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또 『전경』에는 상제께서 제갈량이 마속(馬謖)을 휘루참지(揮淚斬之)한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sup>34)</sup> 제갈량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가 대패한 마속을 군법에 따라 사형시켰던 일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고사성어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때 제갈량이 겪은 심적 고통의 원인은 그가 군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즉, 법이나 공공의 질서를 집행·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홉째, 『전경』에는 이선경 장모의 고통에 대한 기술이 있다.<sup>35)</sup> 그녀는 상제께 공사를 위해 49일간 떡을 찌서 올리겠다는 약속을 누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지속되자 피로움에 불평을 품게 되었다. 이것이 신명들의 노여움을 사서 나무를 한 짐 다 때워도 떡을 익히지 못했고, 결국 상제께 사죄한 후에야 떡을 익힐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결같은 정성을 들이게 된 그녀는 커다란 복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징표는 달에 오색채운이 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선경의 장모가 49일간 천지공사를 받들기 위해 쏟은 정성어린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우주의 상극 도수 혹은 인간이 만들어 낸 상극이 그 원인이었다고 설명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전을 위해서 혹은 복록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노력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 노력에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바로 그러한 점이 고통의 원인인 것으로 이해함이 합리적이다.

34) 『전경』, 권지 2장 38절.

35) 같은 책, 행록 1장 29절.

### Ⅲ. 고통의 유형화: 고통 원인 모델

Ⅱ장에서 『전경』에 나타나는 몇몇 고통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각 사례들이 수식어가 붙지 않은 하나의 단일 명사인 ‘상극’만으로는 간단히 설명해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고통의 원인을 다룰 때는 무엇보다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을 수 없다. 고통의 개요가 상극으로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고통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극 속에 내포된 다양한 프리즘을 읽고 그것을 토대로 개별 고통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Ⅱ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고통의 원인은 여럿이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우선 고통의 원인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그 고통의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둘 모두가거나로 구분되며, 가해자가 국가나 사회 같은 대집단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소수 집단인지, 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설명 방식이 달라진다. 이 외에도 욕망이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의(義)를 실현하거나 법과 공공질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도 있고, 단련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도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각 고통 사례에 반드시 하나씩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고통 사례에 둘 이상의 원인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고통 원인을 하나의 개별 고통 모델들로 상정해 놓고, 그것을 도구삼아 각 고통 사례에 중첩 적용시킨다면 여러 고통 사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Ⅱ장에서 살펴본 고통 원인들 각각을 고통 모델로 삼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자. 각 모델은 모두 영어로 표기할 것인데, 그 이유는 기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1. 개별 고통 원인 모델들

### 1) 고통의 원인이 우주의 상극 도수인 경우: MOC모델

MOC는 ‘Mutual Overcoming of the Cosmos’의 약자로서, 우주의 상극 도수가 고통의 원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살폈듯이 김형렬의 딸이 ‘지미’라고 하는 자연의 흐리고 탁한 기(氣)로 고통을 받은 사례 뿐만 아니라, 비벌(飛鬮)<sup>36)</sup>이나 아표신(餓孛神)<sup>37)</sup> 같은 악독한 귀신 또는 좀성<sup>38)</sup>이 해를 주는 고통,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주는 고통,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해 사상이 엇갈려 반목쟁투하게 되는 고통, 한명(限命)이 가져다주는 죽음과 남은 가족들의 슬픔 등이 모두 MOC모델에 해당한다.

MOC모델의 고통은 위력이 막강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막고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전경』에는 이러한 고통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빈번했다. 인간은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그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한다. 단지 잔혹할 뿐인 이 고통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과 세상을 원망하게 만든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묵은 하늘이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던 탓이라고 단언한다.<sup>39)</sup> 그러므로 구천의 최고신이신 상제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종식을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으며, 삼계를 개벽시키신 천지공사로써 상극 도수를 상생 도수로 전환시켜 새로운 천지의 조판을 구축해 놓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후천에는 더 이상의 상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sup>40)</sup>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36) 『전경』, 제생 31절.

37) 같은 책, 권지 1장 8절, 예시 11절.

38) 같은 책, 권지 2장 18절; 상제께서 좀성을 의인화하여 부르신 것은 좀성을 다스리는 신, 혹은 좀성에 거주하는 신을 부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좀성에 대해서는 『대순회보』 12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pp.38-42 참조.

39) 『전경』, 공사 1장 11절.

상제의 천지공사를 받들며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지극한 정성으로 참여하여<sup>41)</sup> 후천개벽을 한시라도 앞당기는 것이 MOC로 인한 고통들을 소멸시키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2)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극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VMOM · VMOO · VUD모델

V 계열의 모델들인 VMOM · VMOO · VUD는 모두 ‘Victim’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상황을 나타낸다.

첫째로 VMOM은 ‘Victim of Mutual Overcoming Caused by Man’의 약자로서, 국가나 사회 같은 인간 집단이 만든 상극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동학혁명 과정에서의 희생, 홀로코스트나 남경대학살, 르완다 대학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벌어진 ‘인종청소’에서 보듯이 전쟁·난리·집단 간 분쟁 속에서 겪어야 하는 살육을 포함해서, 수절 또는 전족(纏足) 문화가 빚는 남녀차별, 계급차별, 분배의 문제로 인한 빈부격차 등등 정치·경제·사회의 잘못된 질서나 구조, 관습이 만들어내는 여러 고통들이 모두 VMOM모델에 해당한다.

둘째로 VMOO는 ‘Victim of Mutual Overcoming Caused by the Other’의 약자로서, 타인(개인 혹은 소수 패거리)의 의도적인 상극적 행위와 고통의 원인이 됨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VMOM 모델과 같은 맥락에 있지만, 고통 상황에 대한 구체적 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가해자가 전체 집단인지 소수인지를 구분해주기 위해 만든 모델이다.

셋째로 VUD는 ‘Victim of Unintended Deeds’의 약자로서, 의도치 않게 본인도 모르게 상극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타인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책임을 밝힐 때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한 모델이다.

40) 같은 책, 교운 1장 66절, “水火金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41) 같은 책, 예시 17절.



V 계열의 세 모델들은 인류역사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러한 모델들이 나타내는 고통들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가치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분배 문제에 기인하는 가난과 굶주림, 계급이나 인종 차별, 강점과 탄압, 수탈, 전쟁, 집단 학살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특별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한 개인의 행위로 인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달게 받고 견뎌내어야 할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 그저 사라져야 할 대상일 뿐이다.

V 계열의 고통들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 집단이 만드는 상극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고통을 제거할 수 있지만 과거 인류역사를 보건데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인간 사회가 만든 집단적 상극이 야기하는 고통은 인간이 주도하는 스스로의 자체 개혁으로 해결되기는 요원한 것이다.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국가·사회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낙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 죄’, ‘외로운 늑대’가 출현하는 요즘의 세상은 VMOO를 원인으로 하는 고통이 막기 쉽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개인이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음해 같은 비물리적 가해 역시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기 이전에는 도를 닦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음해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한다.<sup>42)</sup>

결국 V 계열의 고통들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고의성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상극을 만드는 일과 상극이 만들어지는 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뿐이다. 전술했듯이 대순진리회는 구천상제이신 증산께서 상극을 없애는 천지공사를 시행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는 후천 지상선경이 상극이 없는 세상이므로, V 계열의 고통들을 없애는 방법은 MOC모

42) 『전경』, 교운 1장 40절.

텔과 마찬가지로 상제의 뜻에 따라 천지공정에 참여하여 상생만이 존재하는 후천을 여는 길 밖에 없다.

### 3) 가해자 혹은 죄인이었기에 형벌을 받는 경우: PPT·PUW모델

PPT·PUW는 모두 ‘Punishment’, 즉 P 계열의 모델들로서 가해자·죄인이었기에 그에 대한 형벌로서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먼저 PPT는 ‘Punishment for Perpetrator or Transgressor’의 약자로서, 자신이 타인에게 가해했거나 혹은 잘못된 일을 벌임으로써 받게 되는 형벌 혹은 해야 할 보상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PUW는 ‘Punishment for Perpetrator or Transgressor with Unintended Wrongdoing’의 약자로서 자신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죄가 되어버리거나 혹은 척(慙)을 만들게 되어 그에 대한 형벌 또는 보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P 계열 모델들 역시 상극 원리를 그 근본으로 삼는다. 다만 이때의 상극은 타인이 만든 상극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상극이며 고통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선 두 모델들과는 구분된다.

도주께서 ‘인숙무죄(人孰無罪: 사람 중에 누가 죄가 없으리오?)’라 하셨듯이<sup>43)</sup> 실로 인간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상제께서는 죄에 따른 형벌로서의 고통이 있음을 알려주셨는데,<sup>44)</sup> 인간의 입장에서 쫓값에 따른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순진리회는 죄 외에도 척이라는 특이한 종교윤리를 사용한다. 상제께서는 “무척 잘 산다.”는 속담을 척이 없어야[無慙] 잘 산다는 뜻으로 풀이하시며 척을 짓지 말라고 강조하셨다.<sup>45)</sup> 척이란 한 마디로 인간이 남에게 ‘원한’을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이나 행동으로써 짓는 죄뿐만 아니라, 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 오는 정이 끊기게 하는 것,

43) 『전경』, 교운 2장 15절.

44) 같은 책, 교법 1장 32절; 같은 책, 교법 1장 33·36·40절, 교법 3장 4·5·24절 등.

45) 같은 책, 교법 2장 44절, 교법 3장 4절, 예시 17·58절.

호의를 거절하는 것, 심지어 눈 흘기는 것조차 모두 죄이 된다.<sup>46)</sup>

척은 자신의 탓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현생이 아닌 전생의 일인 경우도 있고,<sup>47)</sup> 자신의 조상 또는 가족의 업보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진묵이 김봉곡에게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때 “너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나 잡는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고 소리쳤다는 기록이 『전경』에 있는데,<sup>48)</sup> 실제로 그 사건 이후 김봉곡의 후손들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호미를 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보고가 있다.<sup>49)</sup> 김봉곡의 후손들은 본인이 직접 진묵에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나 자신들의 선조인 김봉곡의 악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조상의 겁액이 자손에게도 유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만든 죄이든, 조상이 만든 죄이든, 어쨌든 척은 고통을 안겨다준다.<sup>50)</sup> 그때의 고통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박공우가 가슴을 다쳐 고통 받다가 상제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 지난날에 대한 참회와 보상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했던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sup>51)</sup>

죄·척으로 인한 고통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감내하면서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즉, PPT·PUW로 인한 고통이 갖는 가치란, 선악(善惡)의 공과(功過)라는 저울대에 달리는 인간의 삶을 균형 있게 맞추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6) 『대순진리회요람』, pp.19-20; 『대순지침』, p.27; 『전경』, 교법 2장 46절; “누구 하나 죄인 없는 사람은 없다. 남에게 눈 한번만 흘려도 죄이 맺힌다.” 1991년 12월 7일 우당 훈시, 『훈시』(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47)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그것은 전생에 내가 남을 때려서 죄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나를 때리므로 죄이 풀리는 것이다.” 1991년 5월 15일 우당 훈시, 같은 책.

48) 『전경』, 공사 3장 14·15절 참조.

49) 이승묵, 「진묵의 생애」, 『상생의 길』 3 (2005), pp.84-86 참조.

50)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사상을 중심으로」, pp. 163-164;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와 척을 중심으로」, 『2014東亞人文論壇-東方文化與養生』(2014), p.349.

51) 『전경』, 교법 3장 12절.

#### 4) 허욕·집착·원망이 고통을 낳는 경우: SPD모델

SPD는 ‘Self-Perpetrator Who Conceives Vain Desire, Obsession and Grievance’의 약자로서, 허욕·집착·원망을 품은 자신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욕망과 인간은 분리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욕망은 본능적인 것이다. 종교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욕망을 금기시하는가 하면 인정하기도 한다. 대순진리회는 욕망을 금기로 보지도 않고 무욕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대체로 욕망은 인정되는데, 단 욕망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하고 긍정적인 욕망(Appropriate Ambition)과 자신의 재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욕망(Inappropriate Desire)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당연히 부정적인 욕망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입장이다.<sup>52)</sup>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통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다. SPD모델은 부정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탓에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욕망의 미성취로 초래되는 고통은 다음 모델에서 다룰 것이다.

부정적인 욕망, 즉 허욕은 때때로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또는 집착으로 이어져 원망을 낳고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을 야기한다. 이 과정에 상극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고통은 인간에게 특정한 의미나 가치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욕을 없애야 한다. 그 방법은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요약하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을 되찾을 것, 법례(法禮)에 따른 행동을 하되 허영(虛榮)을 버릴 것, 물욕(物慾)으로 발동하는 사심(私心)에 사로잡히지 말 것,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것 등이다.<sup>53)</sup>

52) 윤기봉, 「대순사상의 도통관에 있어서 실천수행의 문제」, 『종교교육학연구』 38 (2012), p.179; 김영주, 「중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 18 (2012), p.154.

이 외에도 대순진리회는 상생의 되새김과 실천을 또 다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다. 상생에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이 있는데, 해원상생이란 무편무사(無偏無私)하고 정직과 진실을 간직하며 허영을 버리고 분수에 합당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남에게 원한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서로 간에 앙금이 있다면 상호 이해하여 풀고 함께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또 보은상생이란 천지와 부모형제, 국가와 사회, 이웃, 스승께 받은 은혜에 적극 보답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상생의 마음가짐과 실천은 나 스스로의 분수와 위치를 명확히 일깨워주고, 나의 이로움보다는 타인의 이로움을 먼저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과도한 욕망과 허욕, 집착, 원망을 떨칠 수 있게 한다.<sup>54)</sup> 그러므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실천은 SPD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이 된다.

##### 5) 법과 의(義)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경우: ELJ모델

ELJ는 ‘Enforcement of the Law or Practice of Justice’의 약자로서, 법과 공공질서를 구현하는 과정 혹은 의·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좀 전에 정당하고 긍정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도 ELJ모델에 해당한다.

대체로 의나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는 그 고통 원인을 표시할 때 VMOM과 ELJ모델을 중첩시켜야 할 때가 많다. 『전경』에서 이러한 사례를 몇몇 살펴볼 수 있으니, 이를테면 남을 잘되게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을 맞이한 전봉준, 지상천국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사회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 실패한 이마두, 두문동에서 순절한 고려의 충신들, 한일병탄으로 분사한 도주의 조부, 임금을 향한 충성을 끝까지 지킨 사육신 등이 그러하다.<sup>55)</sup>

53) 『대순진리회요람』, p.15, pp.18-19 참조.

54) 『대순회보』 2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2.

55) 『전경』, 공사 3장 2절, 교운 1장 9·50절, 교운 2장 2·57절.

법을 바르게 시행하는 과정 혹은 의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때 발생하는 고통은 견디어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의를 실현하거나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과정에 고통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상극에 의해 지배되는 선천에서 이러한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정의를 실현하려는 행위가 상극의 시달림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천의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려면 상극이 없는 후천이 도래하는 길밖에 없다.

#### 6) 수행, 단련, 정성을 들이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경우: CERT모델

CERT는 ‘Cultivation, Enacting Reordering of the Universe, Ritual Practice, Promotion of Fortune, Test’의 약자로, 수도나 단련, 천지공사를 받드는 과정, 정성을 들이고 복록을 쌓거나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고통이 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훌륭한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평으로만 끝나버리는 허망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늘이 수도와 단련, 복록 배양, 시험을 위해서 준 고통을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모두 CERT모델에 해당하는데, 상제에 대한 신심(信心)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는 고통 역시 크게 보아 이러한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제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천지가 인간을 낳아서 쓰는 시대라고 진단하셨다.<sup>56)</sup> 천지의 쓰임이 있을 때는 참여해야한다. 그런데 천지는 지공무사(至公無私)하므로 상황과 일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가려’ 쓸 것이 틀림없다. 가린다는 것은 곧 자격시험이 있음을 뜻한다. 상제

56) 같은 책, 교법 3장 47절,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께서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 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和氣)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라고 하신 것은<sup>57)</sup>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맹자』 「고자장구하(告子章句下)」의 한 부분을 인용하시어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소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의 품은 뜻을 수고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고통스럽게 하며,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궁핍하게 하며, 그 하는 바를 불란에 빠뜨리는 법이니라. 이런 까닭에 마음을 움직이고 본성을 참게 하여 그 할 수 없었던 바를 할 수 있게 하느니라.”고 하셨던 것에<sup>58)</sup> 주목해야 한다. 이 말씀은 주요 시험과목에 가정 관리 상태와 기국 크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배고픔과 경제적인 고통, 일에 있어서의 고통도 해당됨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상제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움직여야 한다. 즉 하늘이나 타인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살피는 자세로 곳곳이 잘 견디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련을 해야 하니,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연후에야 비로소 신명은 그 사람을 믿고 응하게 될 것이며 천지는 그 사람을 쓸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둔다면, 개혁 이전에 상극이 지배하는 선천의 현실에서 CERT를 주된 원인으로 하는 고통은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2. 고통 원인 모델들의 적용 사례

앞 절에서 6종의 9개 고통 모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을 하나의 도표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종합하자면 대순진리회의 관점에

57) 같은 책, 교법 1장 42절.

58) 같은 책, 행록 3장 50절.

서 볼 때 이 세상에 고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로 인간과는 무관한 우주의 상극 도수 때문이며(MOC), 둘째로 국가·사회·집단이 만든 상극 때문이며(VMOM), 셋째로 타인의 의도적인 상극적 행위 때문이며(VMOO), 넷째로 타인의 비의도적인 행위가 상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며(VUD), 다섯째로 자신이 상극을 만든 죄인·가해자였기에 받아야 하는 형벌 또는 해주어야 할 보상 때문이며(PPT), 여섯째로 자신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상극(죄 혹은 척)으로 귀결되어 받게 되는 형벌 때문이며(PUW), 일곱째로 허욕·집착·원망으로써 상극을 지은 자기 자신 때문이며(SPD), 여덟째로 법·공공질서나 의(義)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극의 시달림을 받기 때문이며(ELJ), 아홉째로 상극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수도와 단련, 정성을 들이거나 천지공사를 받들거나 혹은 시험을 받기 때문이다(CERT).

<표 1> 고통의 원인들

고통의 원인		표기 기호	
우주의 상극 도수		<b>MOC</b>	Mutual Overcoming of the Cosmos
피해자 입장	인간 집단이 만든 상극	<b>VMOM</b>	Victim of Mutual Overcoming Caused by Man
	타인의 의도적인 상극적 행위	<b>VMOO</b>	Victim of Mutual Overcoming Caused by the Other
	타인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상극으로 귀결	<b>VUD</b>	Victim of Unintended Deeds
가해자 입장	가해자였기 때문에 받는 형벌 또는 해야 할 보상	<b>PPT</b>	Punishment for Perpetrator or Transgressor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됨으로써 받는 형벌 또는 해야 할 보상	<b>PUW</b>	Punishment for Perpetrator or Transgressor with Unintended Wrongdoing
자신의 허욕, 집착, 원망		<b>SPD</b>	Self-Perpetrator Who Conceives Va in Desire, Obsession and Grievance
법·공공질서 구현 또는 의(義)의 실현		<b>ELJ</b>	Enforcement of the Law or Practice of Justice
수도, 천지공사 봉행, 단련, 복록 배양, 시험		<b>CERT</b>	Cultivation, Enacting Reordering of the Universe, Ritual Practice, Promotion of Fortune, Test



이 아홉 가지의 이유들이 『전경』의 각 고통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즉 각 고통 원인 모델들이 『전경』의 각 고통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부록의 <표 3>에 표시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그 표에서 기호 ‘○’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음을 각각 의미한다. 선천에는 만물이 상극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고통 사례에는 MOC가 공통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MOC를 제외하고 하나의 모델만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색을 넣어 따로 구분해 두었다.

『전경』에서 살필 수 있는 284개의 고통 사례들 가운데 대략 239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MOC를 제외했을 때 둘 이상의 모델이 작동하는 경우는 모두 80개이다. 여기에 그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고 글의 분량을 고려하여 단 한 가지만 들여다보기로 한다. 비록 하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고통 모델들이 인간 고통을 설명하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찰할 대상은 단주의 고통에 대한 것이다. II장에서 기술했듯이, 『전경』은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단주가 원을 품고 고통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이루지 못한 그의 욕망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상계에서 단주의 원과 그의 해원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주의 욕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으로 귀결된 그의 욕망은 허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욕망이 허욕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려는 원대한 포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통 겪음을 설명하는 ELJ모형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또 『전경』은 단주가 불초하다는 평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평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상고(詳考)하기 힘들다. 최소한 이 기록으로부터 단주가 당시 권력층 집단으로부터 배척된 정황만큼은 입을 수 있다.<sup>59)</sup> 즉 인간이 만든 집단적 상극이 단주 고통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단주의 고통에는 VMOM도 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간행된 『채지가』를 참고해보면, 요임금은 단주에게 왕위를 전하는 대신 바둑판을 주면서 후천운수가 열릴 때까지 해원시대를 기다릴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sup>60)</sup> 단주가 당장의 왕이 되기보다는 바둑판으로써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향후 열릴 후천 지상선경에 크나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의 의도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의 시각으로 판단하기에는, 긴 안목에서 볼 때 단주가 고통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은, 그가 상극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을 상생의 후천으로 바꾸기 위한 긴 여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말은 CERT 역시 단주 고통의 원인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결국 단주 고통의 원인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우주의 상극(MOC)을 기반으로 하면서, VMOM, ELJ, CERT인 것으로 정리된다.

<표 2> 고통 원인 모델을 활용한 고통 사례 설명의 한 예: 단주 고통의 경우

고통의 내용	고통의 원인								
	상 극								
	MOC	VMOM	VMOO	VUD	PPT	PUW	SPD	ELJ	CERT
단주의 고통	○	○	×	×	×	×	×	○	○

59) 최동희, 「해원상생과 우리 일상언어」,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pp.62-66; 정재서, 『양띠 오이디푸스의 신화학』 (과주: 장비, 2010), pp.106-110.

60) 『채지가』 (1978), p.9, “요지자는 단주로서 바둑판을 받을 적에 후천운수 열릴때에 해원시대 기다리라 정녕분부 이러하니 그이치를 뒤알소냐”

#### IV. 대순진리회 고통론의 특징

지금까지의 기술을 토대로, 대순진리회 고통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순진리회가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틀은 상극이다. 즉,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라도 상극과 무관한 것은 없다고 본다. 대순진리회가 상극이라는 우주의 운행법칙을 토대로 하여 고통을 사유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들의 경우와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대순진리회는 인간의 책임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짓는 상극도 우주 도수로서의 상극법칙에 영향을 받은 탓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간 혹은 인간 집단이 자행하는 과오들이 정당화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경』에서 살필 수 있는 284개의 고통 사례들을 분석한 <표 3>에서, MOC모델만 작동하는 사례, 즉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고통 사례는 30개로 불과 1할을 조금 넘을 뿐이다. 개인과 집단의 고통 사례를 같은 하나의 단위로 본다거나 또는 표본 수가 작다는 기본적인 결함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분명 무리라고 하더라도, 『전경』에서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고통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둘째, 고통은 없애고 떨쳐버려야 하는 대상이지만 일정한 가치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 역시 특징이다. P 계열(PPT, PUW)의 모델들에서 고통은 속죄라는 가치를 지니고, ELJ와 CERT모델에서 고통은 정의와 법·공공질서의 구현, 단련을 통한 발전과 향상, 복록 배양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전경』 속 고통을 분석한 <표 3>에서 이러한 사례는 모두 77개로서 원인이 확정된 사례들 가운데 32.2%에 해당한다. 나머지 67.8%의 고통 사례들은 인간에게 그 어떤 보람과 의미도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이처럼 대순

진리회는 고통을 전적으로 회피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관점 대신,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단, 『전경』의 사례로 한정하였을 때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난다.

셋째, 고통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MOC·VMOM·VMOO·VUD모델에서 고통을 없애는 길은 오직 후천개벽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PPT·PUW모델에서는 고통이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이니 만큼 그저 고통을 받아들이고 죄를 다 갚을 때까지 참회하고 감내하는 길뿐이었다. SPD모델에서는 안심·안신의 구현과 상생의 실천으로써 허욕을 물리치는 것이었고, ELJ·CERT모델에서는 정의의 실현과 발전·향상 및 복록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통 극복 방안은 네 가지로 정리되는데, 이 중에서 후천개벽을 지향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참회도 당연히 수행의 범주에 들어가고, 안심·안신·상생의 실천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대순진리회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두 수행으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대순진리회의 고통 경험과 해결은 개인을 넘어 가문 단위일 경우가 있다. 앞선 진목의 사례와 같이 대순진리회는 집안에서 유전되는 척 때문에 고통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수도를 통해 털어내어야 할 척의 책임 소재는 한 개인을 넘어 가문공동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의 척까지도 풀어내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문 단위의 고통을 겪고 해결해야 할 때가 있게 된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죄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고 대순진리회 역시 그러하지만,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대순진리회가 설정하는 범주가 한 개인을 넘어 가문으로까지 더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61)</sup>

61) 물론 조상의 잘못으로 화를 입는다는 것은 도교의 승부(承負) 관념에서도 찾아볼

다섯째, 허욕이 원인이 되는 고통의 해결에서, 대순진리회는 안심·안신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실천법인 상생을 강조한다. 각 종교 역시 허욕을 고통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허욕의 제거를 가르치고 있으니, 이를테면 불교는 탐욕과 집착을 떨치고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할 것을, 유교는 인간 본연의 성품을 되찾고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질서를 확립시킬 것을[正名論], 도교는 자연과 도에 귀의할 것을, 기독교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내세운다.<sup>62)</sup> 이러한 방식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범위가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는 실천법이라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 역시 자기 자신의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되새김과 실천이 강력한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관계 개념을 전제하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은 자기 자신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상대를 잘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실천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들의 경우와는 구분된다.

## V. 맺는말

그 동안 대순사상 연구에서 고통의 원인은 수식어가 없는 단 하나의 명사인 ‘상극’으로만 설명되어왔다. 이것이 대순진리회 고통론의

---

수 있다. 하지만 그 관념은 1800년 전의 후한시대 『태평경』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도교윤리로는 생명력이 없다.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와 척을 중심으로」 참조.

6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김지건, 「고통에 대한 불교적 해석」, 한국국학진흥원 철학·종교연구실, 『悪い란 무엇인가-철학·종교에서 본 악과 고통의 문제』 (서울: 창, 1992), p.273; 박신환, 「고통에 대한 유가철학적 해석」, 같은 책, pp.291-308; 이삼열,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같은 책, p.311; 김대식,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대한 종교·생태학적 인식」, 『종교학연구』 22 (2003), p.195; 안옥선, 「불교에서 본 진리: 고통, 진리, 진리의 방편성」, 『범한철학』 44 (2007), p.2, p.8.

축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의 책임을 주로 우주의 법칙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다양한 실제 고통 사례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해주지는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서 이 글은 『전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고통 사례들을 살펴보고 상극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II장), 고통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만든 후 그것들을 『전경』에 등장하는 고통 사례에 적용시켜 본 뒤에(III장), 대순진리회 고통론의 특징을 추출해보았다.(IV장)

다시 정리하자면, 대순진리회에서 보는 고통의 원인은 우주의 상극 도수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 혹은 악독한 신명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고(MOC), 또 상극 도수에 영향을 입은 인간은 악행을 저지르며 혹은 의도치 않게 상극의 기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 인간(들)에게 혹은 국가·사회의 억압으로 해를 입는 고통을 당하게 되며(VMOM·VMOO·VUD),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보상이나 형벌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PPT·PUW). 그런가하면 심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허욕에 빠져 스스로를 고통 상황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으며(SPD), 상극에 지배 받는 선천의 현실에서 법질서나 의를 구현하려다 보니(ELJ), 또 훈련이나 단련, 하늘로부터의 시험, 정성을 들이는 과정에서(CERT) 고통을 체험하기도 한다.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에서 이러한 모든 종류의 고통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상제를 믿고 천지공사에 동참하여 수행을 함으로써 후천 개벽이 속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전경』의 고통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만큼 미처 다루지 못한 고통의 원인 역시 있을 수 있다. 예컨대 3,000년 전 신들의 잘못이 세상에 큰 고통을 만들어내었다는 대순진리회 내부의 교설(敎說)이 그것인데, 이에 대한 정리 및 분석은 향후 고통에 대한 보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또한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상당수 고통의 원인이 상극이라면, 도대체 왜 그러한 상극이 존재하는가,

상극과 상생의 균형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후천에는 상극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원래 상극과 상생은 공존해야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향후 신정론이라는 틀 속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대순진리회 고통론, 특히 병인론(病因論)에는 무속의 그것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이 역시 다음의 과제로 넘길 것이다. 또한 앞서 기술한 대로 진멸의 위기에 처한 우주로 인해 신성·불·보살이 하소연한 정황으로부터, 대순진리회의 고통 범주는 인간 영역을 넘어서 신명들에게까지 미쳐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상제계서도 괴롭기 한량없다는 표현을 하신 것을 보면,<sup>63)</sup> 고통은 최고신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고통의 범주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설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 역시 숙제로 남긴다.

사실 이 글은 『전경』의 고통 사례들에 대한 정리에 그쳤다는 점에서 대순진리회 고통론에 대한 시론(試論)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향후 이 글이 대순진리회 고통론 연구에 대한 시발점이 되고, 고통에 대한 다양한 아젠다들이 개발되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

63) 『전경』, 공사 1장 9절.

## 부 록

〈표 3〉 『전경』 고통 사례에 대한 고통 모델들의 작동 상황

번호	장 절	내 용	원 인									
			상 극									
			MOC	VMCM	VMCO	VUD	PPT	PUW	SPD	ELJ	CERT	
1	행록 1- 1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공을 받음	○	○	×	×	×	×	×	×	×	×
2	행록 1- 1	수나라 태조가 아들에게 찬탈 당함	○	×	○	×	×	×	×	×	×	×
3	행록 1- 1	강세의가 연산군의 악정을 피해 낙향함 <sup>64)</sup>	○	×	○	×	×	×	×	×	×	×
4	행록 1-17	상제 부친의 빛 걱정	○	○	×	×	×	○	×	×	×	×
5	행록 1-18	술주정꾼이 절구통 속에 갇힘	○	×	×	×	○	×	×	×	×	×
6	행록 1-23	동학군의 패멸과 원한	○	○	×	×	?	×	×	?	×	×
7	행록 1-26	유덕안이 죽음에 직면함	○	○	×	×	×	×	×	×	×	×
8	행록 1-29	이선경 장모의 떡을 찌는 괴로움	○	×	×	×	×	×	×	×	×	○
9	행록 1-31	관내의 부호들이 감옥에 갇힘	○	?	×	?	?	?	×	×	×	×
10	행록 1-34	모친의 죽음으로 겪는 가족의 고통	○	×	×	×	×	×	×	×	×	×
11	행록 1-35	오동팔의 집이 무너짐 <sup>65)</sup>	○	×	×	×	○	×	×	×	×	×
12	행록 2-12	정씨부인의 불명	○	○	×	×	×	×	○	×	○	×
13	행록 2-17	경상도 민란	○	○	×	×	×	×	×	×	×	×
14	행록 2-19	김도일의 요통	○	×	?	?	?	?	×	×	×	×
15	행록 2-21	김성천의 가뭄 걱정	○	×	×	×	×	×	×	×	×	×
16	행록 2-24	안필성의 근심	○	×	×	×	×	×	×	×	○	×
17	행록 3- 1	손자 사망으로 겪는 가족의 고통	○	×	×	×	×	×	×	×	×	×
18	행록 3- 4	장효순의 화난으로 인한 괴로움	○	×	○	×	×	×	×	×	×	○
19	행록 3- 5	장효순의 화난으로 인한 괴로움	○	×	○	×	×	×	×	×	×	○
20	행록 3- 6	장효순의 화난으로 인한 괴로움	○	×	○	×	×	×	×	×	×	○
21	행록 3- 7	친위 장씨가 구타당함	○	×	○	×	×	○	×	×	×	×
22	행록 3- 8	교중(敎中)과 가중(家中)의 분쟁	○	○	×	×	×	×	×	×	×	×
23	행록 3-10	주모가 화적들에게 맞음	○	×	○	×	×	×	×	×	×	×
24	행록 3-11	신배 화제	○	×	×	×	×	×	×	×	×	×
25	행록 3-12	백남신의 관액 <sup>66)</sup>	○	×	×	×	○	×	×	×	×	×
26	행록 3-13	장효순의 사망과 가족들의 고통	○	×	×	×	○	×	×	×	×	×
27	행록 3-14	일진회와 아전의 분쟁	○	○	×	×	×	×	×	×	×	×
28	행록 3-15	일진회원들의 고난	○	○	×	×	×	×	×	×	×	×
29	행록 3-16	이경오가 돈을 도둑맞음	○	×	×	×	○	×	×	×	×	×
30	행록 3-18	일진회원들의 죽음과 그 가족들의 고통	○	○	×	×	×	×	×	×	×	×
31	행록 3-19	정괴산 부인의 슬픔	○	○	×	×	×	×	×	×	×	×
32	행록 3-20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박창국의 고통	○	×	×	×	×	×	×	×	×	×
33	행록 3-23	황숙경이 빛으로 고생함	○	○	×	×	○	○	×	×	×	×
34	행록 3-24	김보경의 도적 걱정	○	×	○	×	×	×	×	×	×	×
35	행록 3-25	김병욱의 전주 민요 진압 고민	○	○	×	×	×	×	×	×	×	×
36	행록 3-26	권직상의 파직 걱정	○	×	×	×	○	×	×	×	×	×
37	행록 3-36	여인이 벼락을 맞아 죽음	○	×	×	×	○	×	×	×	×	×
38	행록 3-37	소작권을 잃게 된 자의 고통 <sup>67)</sup>	○	○	×	○	×	×	×	×	×	×
49	행록 3-37	차경석의 괴로움	○	×	×	×	○	×	×	×	×	×



50	행록 3-55	고부화액과 중도들의 고초	○	○	×	×	×	×	×	×	○
51	행록 3-56	고부화액과 중도들의 고초	○	○	×	×	×	×	×	×	○
52	행록 3-58	고부화액과 중도들의 고초	○	○	×	×	×	×	×	×	○
53	행록 3-59	고부화액과 중도들의 고초	○	○	×	×	×	×	×	×	○
54	행록 3-62	고부화액과 중도들의 고초	○	○	×	×	×	×	×	×	○
55	행록 3-65	고부화액과 중도들의 고초	○	○	×	×	×	×	×	×	○
56	행록 4- 5	한충(韓忠)이 시기를 받아 죽음 <sup>68)</sup>	○	×	○	×	×	×	×	×	×
57	행록 4- 5	가생이 장사로 귀양을 감	○	×	○	×	×	×	×	×	×
58	행록 4- 7	최창조 아내가 점심 대접을 싫어함	○	×	×	×	×	×	×	×	○
59	행록 4-10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괴로움	○	○	×	×	×	×	×	×	×
60	행록 4-11	관운장에 의해 일어난 서양의 대란	○	×	×	×	×	×	×	×	×
61	행록 4-15	농민들의 가뭄 근심	○	×	×	×	×	×	×	×	×
62	행록 4-16	정순감이 맞아 죽음	○	×	×	×	○	×	×	×	×
63	행록 4-18	김덕천이 곤욕을 당함	○	×	×	×	○	×	×	×	×
64	행록 4-19	손병옥 아내의 병	○	×	×	×	○	×	×	×	×
65	행록 4-20	손병옥 아내의 병	○	×	×	×	○	×	×	×	×
66	행록 4-21	김병계가 진창에 빠짐	○	×	×	×	×	×	○	×	×
67	행록 4-27	가뭄	○	×	×	×	×	×	×	×	×
68	행록 4-28	백납신이 친포 도굴을 당함	○	×	○	×	×	×	×	×	×
69	행록 4-29	도적이 감옥에 감	○	×	×	×	○	×	×	×	×
70	행록 4-30	차윤질의 불평	○	×	○	×	×	×	○	×	○
71	행록 4-31	김갑철이 비를 맞음	○	×	×	×	×	×	×	×	○
72	행록 4-36	병옥 아내의 와서증	○	×	×	×	○	×	×	×	×
73	행록 4-38	촉나라 망제의 헌 <sup>69)</sup>	○	×	○	×	×	×	×	×	×
74	행록 4-47	의병이 총살당함	○	×	×	×	○	×	×	×	×
75	행록 4-47	김영환이 꾸중을 들음	○	×	×	×	○	×	×	×	×
76	행록 4-47	전주 아전이 다툼 끝에 죽음	○	×	○	×	○	×	×	×	×
77	행록 4-54	서당 아이가 원한을 가짐	○	×	×	×	×	×	○	×	×
78	행록 4-55	김광찬의 불만	○	×	×	×	×	×	○	×	×
79	행록 4-56	김광찬의 불만	○	×	×	×	×	×	○	×	×
80	행록 5- 4	강괄문의 급병과 죽음	○	×	×	×	○	×	×	×	×
81	행록 5- 5	이등박문의 죽음	○	×	×	×	○	×	×	×	×
82	행록 5-11	황응중과 문공신이 구타당함	○	×	○	×	×	×	×	×	○
83	행록 5-13	간자현의 상(喪)	○	×	×	×	×	×	×	×	×
84	행록 5-15	천곡의 절사(節死) <sup>70)</sup>	○	○	×	×	×	×	×	○	×
85	행록 5-36	중도들과 상제 가족들의 슬픔	○	×	×	×	×	×	×	×	○
86	공사 1-12	인종차별과 동사궐로 인한 약자들의 고통	○	○	×	×	×	×	×	×	×
87	공사 1-15	중도들이 정신을 잃음	○	×	×	×	×	×	×	×	○
88	공사 1-16	정성백의 오한	○	×	×	×	×	○	×	×	×
89	공사 1-18	중도들의 뱃멀미	○	×	×	×	×	×	×	×	○
90	공사 1-20	오의관의 해숫병	○	×	?	?	?	?	×	×	×
91	공사 1-21	김갑철의 절사	○	×	?	?	?	?	×	×	×
92	공사 1-21	오의간 아내의 청맹	○	×	?	?	?	?	×	×	×
93	공사 1-24	최익현이 체포당하여 죽음 <sup>71)</sup>	○	○	×	×	×	×	×	○	×
94	공사 1-25	아전과 촌 양반의 갈등	○	○	×	×	×	×	×	×	×
95	공사 2- 3	단주의 고통	○	○	×	×	×	×	×	○	○

96	공사 2- 8	목수의 수전증	○	×	×	×	○	×	×	×	×	×
97	공사 2-15	김형렬의 삭발 걱정	○	×	×	×	×	×	×	×	×	○
98	공사 2-17	청춘과부의 수절	○	○	×	×	×	×	×	×	×	×
99	공사 2-19	동학군의 패멸과 원한	○	○	×	×	?	?	?	?	?	×
100	공사 2-22	최익현이 체포당하여 죽음 <sup>72)</sup>	○	○	×	×	×	×	×	×	○	×
110	공사 2-22	박영효의 원 <sup>73)</sup>	○	○	×	×	×	×	×	×	○	×
111	공사 3- 1	김광천의 상(喪)	○	×	×	×	×	×	×	×	×	×
112	공사 3- 2	전명숙의 원	○	○	×	×	×	×	×	×	○	×
113	공사 3- 2	최수운의 원	○	○	×	×	×	×	×	×	○	×
114	공사 3- 4	단주의 원	○	○	×	×	×	×	×	×	○	○
115	공사 3- 4	순임금의 죽음으로 인한 두 왕비의 슬픔	○	×	×	×	○	×	×	×	×	×
116	공사 3- 5	사상의 차이로 나타나는 반목과 쟁투	○	○	×	×	×	×	×	×	×	×
117	공사 3- 8	사나운 짐승이나 해충이 주는 고통	○	×	×	×	×	×	×	×	×	×
118	공사 3-15	진목의 죽음	○	×	○	×	×	×	×	×	×	×
119	공사 3-15	김봉곡 집안이 조상의 잘못으로 몰락함	○	×	×	×	○	×	×	×	×	×
120	공사 3-17	진시황의 원 <sup>74)</sup>	○	○	?	?	?	?	?	×	×	×
121	공사 3-18	청이 열강의 침략을 받음	○	○	×	×	×	×	×	×	×	×
122	공사 3-18	중국이 청에게 지배를 받음	○	○	×	×	×	×	×	×	×	×
123	공사 3-19	역신(逆神)의 원한	○	○	×	×	×	×	?	×	×	×
124	공사 3-21	재실 관리인의 죽음으로 인한 아내의 고통	○	×	×	×	×	×	×	×	×	×
125	공사 3-21	충도들이 쓰러짐	○	×	×	×	×	×	×	×	×	○
126	공사 3-22	광서제의 죽음	○	○	○	×	×	×	×	×	×	×
127	공사 2-28	신원일 동생의 집이 폭우로 파괴됨	○	×	×	×	○	×	×	×	×	×
128	공사 3-29	어떤 사람의 병	○	×	?	?	?	?	?	?	×	×
129	공사 3-31	일본 신호(神戶)의 화재	○	×	×	×	○	×	×	×	×	×
130	공사 3-36	김형렬의 걱정	○	×	×	×	×	×	×	×	×	○
131	교운 1- 1	김형렬의 근심	○	○	×	×	×	×	×	×	×	○
132	교운 1- 9	이마두가 뜻을 이루지 못함	○	○	○	×	×	×	×	×	○	×
133	교운 1-12	김병옥의 관액	○	○	×	×	×	×	×	×	×	×
134	교운 1-13	김병옥의 관액	○	○	×	×	×	×	×	×	×	×
135	교운 1-14	김병옥의 관액	○	○	×	×	×	×	×	×	×	×
136	교운 1-23	김덕천의 두려움	○	×	×	×	○	×	×	×	×	×
137	교운 1-24	송대유 사촌의 폐병	○	×	?	?	?	?	?	×	×	×
138	교운 1-29	위나라의 멸망	○	○	×	×	○	×	×	×	×	×
149	교운 1-31	이화춘과 박장군에게 닥친 재앙	○	×	×	×	○	×	×	×	×	×
150	교운 1-32	천한 신분으로 인한 고통	○	○	×	×	×	×	×	×	×	×
151	교운 1-34	수도의 성파를 보지 못함	○	?	?	?	?	?	?	?	?	○
152	교운 1-39	충도들이 연기에 질식함	○	×	×	×	×	×	×	×	×	○
153	교운 1-40	수도인들이 음해를 이기지 못함	○	×	○	○	×	×	×	×	×	×
154	교운 1-49	차경석이 주사를 받음	○	×	○	×	×	×	×	×	×	×
155	교운 1-50	두문동 고려 충신들의 절사(節死)	○	○	×	×	×	×	×	×	○	×
156	교운 1-51	차경석의 죽음	○	×	×	×	○	×	×	×	×	×
157	교운 1-61	기후와 화담으로 인한 병고	○	×	×	×	×	×	×	×	×	×
158	교운 2- 2	도주 조부의 분사(憤死)	○	○	×	×	×	×	×	×	○	×
159	교운 2- 4	도주 가족들의 망명	○	○	×	×	×	×	×	×	×	×
160	교운 2- 5	도주 부친의 관액	○	○	×	×	×	×	×	×	×	×



207	권지 1-28	표류하다 억울하게 살해된 사람들의 고통	○	×	×	○	×	×	×	×	×	×	×	×
208	권지 1-29	강영학의 사망	○	×	×	×	×	○	×	×	×	×	×	×
209	권지 1-30	모친상으로 인한 김덕찬의 슬픔	○	×	×	×	×	×	×	×	×	×	×	×
210	권지 2- 1	박공우 아내의 병	○	×	×	×	×	×	×	×	○	×	×	×
211	권지 2- 1	박공우의 요통	○	×	×	×	×	×	×	×	○	×	×	×
212	권지 2-15	김경학의 화재 <sup>76)</sup>	○	×	×	×	×	○	×	×	×	×	×	×
213	권지 2-16	산사태로 인한 고통	○	×	×	×	×	×	×	×	×	×	×	×
214	권지 2-18	충성에 의한 호환	○	×	×	×	×	×	×	×	×	×	×	×
215	권지 2-19	가뭄과 총재의 고통	○	×	×	×	×	×	×	×	×	×	×	×
216	권지 2-20	정성원의 세금 포탈로 인한 마음 고생	○	×	×	×	×	○	×	×	×	×	×	×
217	권지 2-27	양친사의 죽음으로 인한 재지들의 슬픔 <sup>77)</sup>	○	×	×	×	×	×	×	×	×	×	×	×
218	권지 2-29	행객의 싸움 <sup>78)</sup>	○	×	×	×	×	×	×	×	×	×	○	×
219	권지 2-34	고부인의 안길	○	×	?	?	?	?	?	?	?	×	×	×
220	권지 2-34	희남의 병	○	×	?	?	?	?	?	?	?	×	×	×
221	권지 2-36	풍우한서(風雨寒暑)가 주는 괴로움	○	×	×	×	×	×	×	×	×	×	×	×
222	권지 2-37	진목의 억울한 죽음	○	×	×	×	×	×	×	×	×	×	×	×
223	권지 2-38	공명이 마축을 휘루참지(揮淚斬之)함	○	×	×	×	×	×	×	×	○	×	×	×
224	제생 2	이경오의 병	○	×	?	?	?	?	?	?	?	×	×	×
225	제생 3	상제님 부친 병환	○	×	?	?	?	?	?	?	?	×	×	×
226	제생 5	김형렬 부인의 산후 고통	○	×	?	?	?	?	?	?	?	×	×	×
227	제생 6	장효선 딸의 횃배없이	○	×	?	?	?	?	?	?	?	×	×	×
228	제생 7	김윤근의 치결	○	×	?	?	?	?	?	?	?	×	×	×
229	제생 8	이도삼 간절병	○	×	?	?	?	?	?	?	?	×	×	×
230	제생 9	김사명 아들의 급병과 죽음	○	×	?	?	?	?	?	?	?	×	×	×
231	제생 10	김창여의 체증	○	×	?	?	?	?	?	?	?	×	×	×
232	제생 11	얇은뱅이의 고통	○	×	?	?	?	?	?	?	?	×	×	×
233	제생 12	박순여 모친의 병	○	×	?	?	?	?	?	?	?	×	×	×
234	제생 13	전순일의 지병	○	×	?	?	?	?	?	?	?	×	×	×
235	제생 13	전순일이 입맛을 잃음	○	×	×	×	×	○	×	×	×	×	×	×
236	제생 14	김갑진의 문등병	○	×	?	?	?	?	?	?	?	×	×	×
237	제생 15	김성화 이웃의 병	○	×	?	?	?	?	?	?	?	×	×	×
238	제생 17	신원일 부친의 여업 철폐	○	×	×	×	×	○	×	×	×	×	×	×
239	제생 18	신원일 부친의 빛 고통	○	×	×	×	×	○	×	×	×	×	×	×
250	제생 19	문대윤의 송사	○	?	?	?	?	?	?	?	?	×	×	×
251	제생 20	각통과 오한, 두통의 고통	○	×	?	?	?	?	?	?	?	×	×	×
252	제생 21	김갑철 형수의 병	○	×	?	?	?	?	?	?	?	×	×	×
253	제생 22	김석의 폐병	○	×	?	?	?	?	?	?	?	×	×	×
254	제생 23	청주와 나주의 괴질	○	×	×	×	×	×	×	×	×	×	×	×
255	제생 24	정태문의 토질	○	×	?	?	?	?	?	?	?	×	×	×
256	제생 24	정태문의 복통	○	×	×	×	×	×	○	×	×	×	×	×
257	제생 25	평양집 아들이 얇은뱅이가 됨	○	×	?	?	?	?	?	?	?	×	×	×
258	제생 26	박순여의 부증	○	×	×	×	×	○	×	×	×	×	×	×
259	제생 27	차경석 소실의 병	○	×	×	×	×	×	×	×	○	×	×	×
260	제생 28	김경학 아들의 병	○	×	?	?	?	?	?	?	?	×	×	×
261	제생 29	김경학의 병	○	×	?	?	?	?	?	?	?	×	×	×
262	제생 30	소년이 다리를 다침	○	×	?	?	?	?	?	?	?	×	×	×

263	제생 31	비벌로 인한 아기의 병	○	×	×	×	×	×	×	×	×	×	×
264	제생 32	주막 주인의 창증	○	×	?	?	?	?	?	?	×	×	×
265	제생 33	김낙범의 천포창	○	×	?	?	?	?	?	?	×	×	×
266	제생 34	김영조의 안길	○	×	?	?	?	?	?	?	×	×	×
267	제생 35	문공신의 병	○	×	×	×	×	○	×	×	×	×	×
268	제생 36	문공신 모친의 요통	○	×	?	?	?	?	?	?	×	×	×
269	제생 37	이질로 인한 고통	○	×	?	?	?	?	?	?	×	×	×
270	제생 39	박공우의 설사	○	×	×	○	×	×	×	×	×	×	×
271	제생 40	지미로 인한 김형렬 딸의 병	○	×	×	×	×	×	×	×	×	×	×
272	제생 41	고부인 모친의 단독	○	×	?	?	?	?	?	?	×	×	×
273	제생 42	이치안의 급병	○	×	?	?	?	?	?	?	×	×	×
274	제생 44	얇은땀이 여인의 고통	○	×	?	?	?	?	?	?	×	×	×
275	예시 11	아표신으로 인한 굶주림의 고통	○	×	×	×	×	×	×	×	×	×	×
276	예시 21	문왕이 유리(姜里)에 감금당함	○	×	○	×	×	×	×	×	×	×	×
277	예시 23	일로전쟁	○	×	○	×	×	×	×	×	×	×	×
278	예시 24	서양의 동양 침략	○	×	○	×	×	×	×	×	×	×	×
279	예시 26	청일전쟁	○	×	○	×	×	×	×	×	×	×	×
280	예시 37	민영환의 순절	○	○	×	×	×	×	×	×	○	×	×
281	예시 41	손씨가 쓰러짐	○	×	×	×	×	×	×	×	×	×	○
282	예시 60	손병희가 꾸민 난리 <sup>79)</sup>	○	×	○	×	×	×	×	×	×	×	×
283	예시 63	상제 부친의 고난	○	×	×	×	×	○	×	×	×	×	×
284	예시 73	임진왜란으로 받은 조선의 고통	○	×	○	×	×	×	×	×	×	×	×

- 64) 『대순회보』 73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7), pp.22-23 참조.  
 65) 『대순회보』 10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p.12-15 참조.  
 66) 『대순회보』 10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9), pp.24-29 참조.  
 67) 『대순회보』 117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1), pp.12-15 참조.  
 68) 『대순소식』 16 (여주: 대순진리회 기획부, 2005), p.9 참조.  
 69) 『대순회보』 141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3), pp.104-105 참조.  
 70) 『대순회보』 145, pp.18-23 참조.  
 71) 『대순회보』 6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6), pp.58-75 참조.  
 72) 『대순회보』 65, pp.58-75 참조.  
 73) 『대순회보』 65, pp.58-75 참조.  
 74) 『대순회보』 140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3), pp.21-27 참조.  
 75) 『대순소식』 16, p.9 참조.  
 76) 『대순회보』 14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3), p.21 참조.  
 77) 『대순회보』 124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1), pp.108-121 참조.  
 78) 『대순회보』 129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p.18-21 참조.  
 79) 『대순회보』 74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7), pp.52-55 참조.

## 【참고문헌】

- 『대순소식』 16, 여주: 대순진리회 기획부, 2005.
- 『대순전경』 6판, 김제: 동도교 증산교회 본부, 1965.
- 『대순지침』, 1984.
- 『대순진리회요람』, 1969.
- 『대순회보』 2,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회보』 6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6.
- 『대순회보』 7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 『대순회보』 7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 『대순회보』 10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9.
- 『대순회보』 10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회보』 11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 『대순회보』 12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 『대순회보』 12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 『대순회보』 129,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회보』 14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3.
- 『대순회보』 14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3.
- 『대순회보』 14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3.
- 『대순회보』 14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3.
-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채지가』, 1978.
-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 강영안, 「고통의 현상학-박원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 『기호학연구』 3, 1997.
- 곽신환, 「고통에 대한 유가철학적 해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 연구실, 『옳이란 무엇인가-철학·종교에서 본 악과 고통의 문제』, 서울: 창, 1992.
- 김대식,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대한 종교·생태학적 인식」, 『종교학

연구』 22, 2003.

- 김영주,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 18, 2012.
- 김지건, 「고통에 대한 불교적 해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 『옳이란 무엇인가-철학·종교에서 본 악과 고통의 문제』, 서울: 창, 1992.
- 김 탁, 「증산 강일순이 인용한 漢詩 연구」, 『한국종교』 19, 1994.
- 박혜민, 「소문과 진실의 경계: 유구국세자 이야기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고찰」, 『연민학지』 21, 2014.
- 손봉호, 「고통에 대한 역사철학적 성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 『옳이란 무엇인가-철학·종교에서 본 악과 고통의 문제』, 서울: 창, 1992.
- \_\_\_\_\_, 『고통 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안옥선, 「불교에서 본 진리: 고통, 진리, 진리의 방편성」, 『범한철학』 44, 2007.
- 유호중, 「고통과 인식」, 『철학연구』 65, 2004.
- 윤기봉, 「대순사상의 도통관에 있어서 실천수행의 문제」, 『종교교육학 연구』 38, 2012.
- 윤재근,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4, 1998.
- 이경원, 「대순종지의 사상적 구조와 음양합덕론」, 『대순사상논총』 2, 1997.
- 이길용, 「한국 종교학 방법론의 과제와 전망」, 『종교연구』 70, 2013.
- 이삼열,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 『옳이란 무엇인가-철학·종교에서 본 악과 고통의 문제』, 서울: 창, 1992.
- 이승목, 「진목의 생애」, 『상생의 길』 3, 2005.
- 이중환, 『택리지』, 이익성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2.
- 장병길,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 전관수, 『한시작가·작품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7.
-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경상도 단성현 호적장부』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고문서연구』 18, 2000.

- 정재서, 『양띠 오이디푸스의 신화학』, 파주: 창비, 2010.
- 차선근, 「근대 한국의 신선 관념 변용-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사상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2, 2011.
- \_\_\_\_\_,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 연구」, 『종교연구』 65, 2011.
- \_\_\_\_\_, 「대순진리회의 현재와 미래-포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한국 종교의 확산전략』,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 \_\_\_\_\_,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와 척을 중심으로」, 『2014東亞人文論壇-東方文化與養生』, 2014.
- \_\_\_\_\_,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 최동희, 「해원상생과 우리 일상언어」, 『대순진리학술논총』 4, 2009.
- 최종성, 「巫의 치료와 저주」, 『종교와 문화』 7, 2001.
- \_\_\_\_\_, 「儒醫와 巫醫-유교와 무속의 치유」, 『종교연구』 26, 2002.
- 하홍규, 「실천으로서의 종교-의미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문화연구』 15, 2010.
- 황선명, 「고통, 구원 그리고 광기」, 『종교학연구』 3, 1980.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 of Sufferings in Daesoonjinrihoe

**Seon-Keun Cha**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Daesoonjinrihoe perceives that human suffering is caused not only by mental factors but also by the cosmic principle of Mutual Overcoming more fundamentally. The relationship influenced among all things in the universe is Mutual Beneficence and Mutual Overcoming. If these relations are properly cooperated in harmony, all things will reveal their energetic existence in a balanced state, however, if one side, particularly, Mutual Overcoming becomes excessive, indeed, it will cause trouble. That is, the sentient beings that are inclined to excessive Mutual Overcoming rather than indispensable Mutual Overcoming make grievances among themselves and cumulate them. In the end, heaven and earth lose its constant Way[常道], leading the sentient beings to all kinds of agonies.

However, it may be a problem if every agony is depicted with Mutual Overcoming, that is, one single fixed frame, because Mutual Overcoming has to be interpreted diversel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Thus, it is not possible to explain precisely about the agony if not understanding its spectrum. This study analyzed

the ways how Daesoonjinrihoe explains the aspects of reasons and solutions to a variety of agonies.

In the Supreme Scripture of Daesoonjinrihoe, the reasons for agony vary: first, it is caused by Mutual Overcoming of the cosmos itself, which is irrelevant to human beings. Secondly, man can be victimized because of Mutual Overcoming caused by man. Thirdly, there is a case of a victim who is damaged due to Mutual Overcoming caused by the other. Fourthly, man can be victimized because of Mutual Overcoming caused by someone else's unintended deeds. Fifthly, there is a case of man having agony in return when he, as a perpetrator, hurt others or resolve his inappropriate desires. Sixthly, man's deed unintendedly became a sin and have agony in return. Seventhly, man can be a self-perpetrator, conceiving vain desire, obsession and grievance. Eightly, there is a case of man having agony during enforcement of the law or practice of justice. Ninthly, man needs to endure agony during self-cultivation, enacting Reordering of the Universe(天地公事), ritual practice, promotion of fortune, and test.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reason for agony can interact with not only one but also diverse models in real situation.

These nine model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utual Overcoming; but, these cannot be classified in a single term, Mutual Overcoming because much information will be hidden, only to make it difficult to explain about agony more precisely.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 observed in the concept of agony in Daesoonjinrihoe as follows: first, reasons for agony are caused by Mutual Overcoming although Mutual Overcoming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Secondly, Daesoonjinrihoe

makes a positive valuation for some agony. Thirdly, the solution to overcome a agony is brought to a conclusion, that is cultivation practice of Daesoonjinrihoe. Fourthly, the experience of agony and solution in Daesoonjinrihoe sometimes lie in the unit of family beyond individual. Fifthly, in the painful situation resulted from vain desire and obsession, Daesoonjinrihoe suggests a solution called Mutual Beneficence. That is, it emphasizes not only self-control but also active practice of considering others.

**Key words** : Suffering(고통), The Theory of Suffering(고통이론), the model of the suffering(고통모델), Mutual Overcoming(상극), Mutual Beneficence(상생), Vain Desire(허욕), sin(죄), punishment(형벌), Cultivation Practice(수행)

- ◎ 투 고 일 : 2015년 5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5년 7월 24일~8월 5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10월 6일